

영암 관내 농협 조합장선거 ‘후유증’ 심각

“목포대 의대·부속병원 설립 촉구” 이상주 신안군의원, 건의문 발표

Y농협, 모 군의원 가세 의혹 S농협, 전무 선거 개입 논란

지난 8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났지만 지난 선거운동과정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불법 행위들에 대해 선관위 조사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27일 전남도선관위와 영암군선관위에 따르면 영암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 2건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낙선한 후보자는 물론 당선된 후보자에 게도 조합원들의 신뢰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져 선관위에 고발된 논란의 사안들에 대한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Y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영암군의회 A의원이 모 조합장 후보를 대상으로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등의 선

거 개입 여부가 전남도선관위에 의해 조사중이다.

A군의원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중요도를 감안해 전남도선관위에서 영암군선관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사건을 맡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내린 결론을 중앙선관위에 올려 그 결론을 가지고 최종 검토를 한 후 조치의 수준이 정해질 것이다”며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조사가 마무리되고 최종 결론이 나오지는 확답을 내릴 수 없다”며 밝혔다.

반면, 영암관내 S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현직 조합장 1명의 이사 출신 후보가 각축을 벌여 현 조합장이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가 끝난 후 해당 농협 B전무가 조합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져 영암군선관위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농협 B전무는 지난달 21일 사업실적 등을 적시해 단체대화방 등 SNS에 게시한 행위로 영암군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후 조합보답대회 기간이 선거 직후인 3월 13일부터임에도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에 상품권 5만원을 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상품권 배포 당시 마을 이장들에게 조합실적이 적시된 방송원고를 배포하고 단체대화방에 조합실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드러나 위탁선거법 위반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B전무는 조합장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6일 오후 모 식당에서 선거 출마자인 현 조합장, 감사 조합원 등과의 부적절한 회동에 음식비용을 자신의 소유인 농업법인카드를 계산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B전무는 “단체대화방에 조합사업실적을 게시한 부분과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조합상

품권은 매년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이는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암은 다른 지역보다 영농이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상품권도 조금 일르게 2월 말 배포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선거 이틀 전 현 조합장, 감사 조합원 등과의 회동에서 음식비용 지출에 사용된 카드는 (본인 소유)영농조합의 법인카드였고, 이는 선관위 조사 당시 모두 소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전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영암군선관위는 “조사 중의 사안으로 위의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위탁선거법 제31조에 따르면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최복섭 기자



신안군의회 이상주 의원이 최근 열린 제 31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전남은 높은 의료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지역의 의료 이용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신안군은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종합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전남도민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자치단체에 전달될 계획이다. /신안=이주열 기자

목포-신안, 도농상생교류 추진 ‘탄력’

“모란공원 무궁화 매력 뽐낼 것” 해남 김종관씨, 봉사활동 눈길

보고회서 자매결연 상황 공유

목포시와 신안군의 도농상생교류가 탄력을 받으며 통합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도농상생교류 운동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양 시군의 민간단체 자매결연 상황 등을 공유했다.

시청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목포시 23개 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 동 자매결연 결과와 수범사례를 소개하고 통합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목포시는 도농지역 간 상생교류를 통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안반도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목포·신안 지역 경쟁력 강화



목포시가 최근 도농상생교류 운동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목포시 제공

와 관광·문화·경제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도농상생교류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시는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신안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무안반도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

가고 있는데, 그동안 목포시 23개 동과 신안군 14개 읍면이 자매결연을 맺고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양 시군의 자매단체들은 각 자매결연지의 지역 특산물이나 협약기념 전자 벽시계를 제작해 선물을 상호 교환하기도 했고, 목포시가 개최한 2023 시민과의 대화에 자매결연지 주민들이 초청돼 시 관광지를 둘러보는 등 친선 대화의 장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동별 도농교류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양 시군은 목포 유달산 봄 축제, 신안 지도읍 선도 수선화 축제 등 대표적인 지역축제에 상호 방문하고, 농촌일손돕기 등을 포함한 특색있는 도농상생교류 활동을 발굴해 통합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 나갈 계획이다. /목포=박승경·신안=이주열 기자

강진을 강진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화제다.

화제의 인물은 무궁화 사랑이 에뿃한 김종관씨(63·해남군 옥천면)이다. 김씨는 나라꽃 무궁화 전국품평회에서 최우수상 11번, 장려상 8번을 비롯해 수많은 상을 수상했고 그 중 ‘2012년 22회 나라꽃 무궁화품평회’에서 최우수상(전남도지사상)을 받은 무궁화나무 약 10주를 2014년 강진군 세계모란공원 조성 당시 기증했다.

이후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약 10년간 강진군 세계모란공원에 직접 방문해 퇴비 시비작업, 나무 전정 등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의 보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 씨는 강진농고를 졸업한 뒤 무궁화를 화려하게 꽃 피우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현재는 1만㎡ 규모의 개인 농장에서 7,000주(50여 종)의 무궁화를 재배하고 있다.

최근 김종관 회장은 “나무를 기증한 것 뿐인데, 조경수 기준 표식판에 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겠다”며 “앞으로도 매년 방문해 무궁화나무를 열심히 가꾸 세계모란공원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무궁화의 매력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담양교육청, 농산어촌 유학생 가정방문



담양교육지원청이 최근 2023학년도 1학기 농산어촌유학생 가정을 방문해 담양에서의 유학생 생활 시작을 환영했다. <사진>

담양 농산어촌유학생은 금성초 3명, 월산초 2명, 만덕초 1명으로 가족의 일부가 담양으로 이주해 6개월 또는 1년 동안 담양학생들과 함께 한다. 이번 유학생가족 방문은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와 이장, 노인회장 등 지역민이 참석해 유

학가족의 전입을 함께 환영하고, 농산어촌유학 내용을 서로 공유하며 유학생과 가족이 학교와 담양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민·관·학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담양교육지원청은 지자체와의 협조 아래 금성면, 월산면, 용면에 유학지구를 조성해 모듈형 주택 10개소를 건축할 예정이다. /담양=정일남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서당영어조합 김동수 대표, 고향기부금

해남에 있는 서당영어조합법인 김동수 대표가 목포시에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 5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은 최근 목포시청에서 박홍률 목포시장, 김동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기부는 김동수 대표가 목포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의 사를 표현해 이뤄졌다. 김 대표는 “태어난 고향인 해남과

학창시절을 보낸 목포가 똑같은 고향이라고 생각해 기부에 동참했다. 내 마음의 고향 목포의 발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해남이 고향인 김동수 대표는 목포 덕인고를 졸업한 후 현재 목포덕인고 총동문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목포와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목포=박승경 기자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잇따라

최근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사업단 안정균 단장이 200만 원, 청림농원영농조합법인 안정균 대표가 300만 원을 강진군민장학재단에 쾌척했다.

농수특산물 직거래사업단은 강진의 농수특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 판매를 주도하며 전국 단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진=한태선 기자

1990년에 설립된 청림농원(강진읍 교촌리)은 유기농 표고버섯을 생산해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20년 6월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청림농원 안정균 대표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5,4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무안농협, 승달장학금 2,000만원 전달

최근 무안농협협동조합(조합장 노은준)에서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재)무안군승달 장학회에 장학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무안을 대표하는 지역농협인 무안농협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자체적으

로 조합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은준 조합장은 “지역 인재 양성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